



BIC, 프랑스 파리에서 전화하다

그 여름 오후, 나는 산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다.

도시에서는 기온이 섭씨 42도에 이르러 있었다. 사우디 칼라브리아는 사막의 더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었다. 우리는 아직 OPEC에 가입하지 못했고, 이탈리아는 여전히 우리를 놓아주기를 거부했으며, 브뤼셀은 날마다 다른 청구서를 내밀었고, 청구서마다 새로운 희생을 요구했다.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되돌아보는 일을 멈출 수 없어서, 나는 최근에 펼쳐진 사건들에 미소 지었고, 이야기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리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를 다시 읽는 동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다.

BIC France의 이사회 전체가 내 도시를 떠난 지 겨우 며칠이 지났을 뿐이었다. Chanel은 그 직후에 떠났고, 스물네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Telegram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호텔의 그 여자가 당신 전화번호를 알려 줬어요. 여자들은 언제나 서로 이런 작은 호의를 주고받지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그리고 당신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흔히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마웠어요. 당신은 내 몸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여자로서 솔직히 말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고 믿어요. 약속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불가능한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곧 또 얘기해요.

키스를 보내며,

Chanel.”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자연 속으로 사라지려던 참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 왔다.

국가 번호는 언제나처럼 같았다.

+33. 프랑스.

Chanel이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나는 곧바로 받지 않았다.

실은 그녀의 네 번째 시도에서야 받았다. 전화는 매번 앞의 전화가 끝나고 거의 정확히 5분 뒤에 걸려 왔다.

나는 그 일이 정말로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지 알고 싶었고, 이것이 그것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일한 전략이었다.

그것은 어머니 Gillette가 나에게 가르쳐 준 비밀 가운데 하나였다.

결코 당신의 모든 시간을 내주지 마라.

너무 쉽게 닿는 사람이 되지 마라.

가치 있는 무언가가 되어라. 거의 귀중한 물건처럼.

그래야만 당신의 가치가 오르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당신을 제대로 대할 것이다.

마침내 받을 때가 왔다.

그녀는 짜증 난 목소리로, 내가 어디로 사라졌었는지 곧바로 물었다.

중요한 일이었다.

급한 일이었다.

우리는 다시 만나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최고위급의 만남이 될 것이었다.

“누굽니까?” 내가 물었다. “바티칸의 교황이라도 됩니까?”

“아니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언제나 똑같네요.”

그 말은 그녀가 이미 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거의 암시하는 듯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말을 이었다.

“BIC의 최대 지분을 가진 가문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조차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모두 여자예요. 남자는 없어요.”

“파리로 오시겠어요?”

“구할 수 있는 낙타가 얼마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게다가 제가 아주 적은 돈으로 산다는 거 알잖아요.”

“당신이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 책을 읽으면서, 당신이 여자들에게 결코 거절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아함과 스타일과 품격의 문제지요. 당신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얼굴 붉히게 하지 마세요.” 내가 말했다. “특히 전화로는 당신이 절대 알아채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언제 가면 될까요?”

“원하실 때 언제든지요. 약속은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샹젤리제의 한 카페 안에서 당신을 만날 거예요. 마시고 싶은 건 무엇이든 주문하셔도 돼요.”

“준비해서 곧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통화가 끝난 뒤,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러나 어떤 생각도 비범한 여자들의 즉흥 속에 담긴 현실에는 결코 닿을 수 없었다.

Ferdinando